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리적 강박 해소를 위한 연필 드로잉  
연구

- 나의 작업을 중심으로 -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기 보 경

심리적 강박 해소를 위한 연필 드로잉  
연구

- 나의 작업을 중심으로 -

김 정 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기 보 경

# 인 준 서

기보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박 영근           (인)

심사위원           조 병 왕           (인)

심사위원           임 상 빈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된 나의 연필 드로잉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서술하였다.

나는 피부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피부를 자기 이해의 매개체로 보았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거대한 감각기관으로, 몸을 모두 감싸는 동시에 외부 환경과 닿아 있으며 신체의 긴장도를 조절한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라면 피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심리 상태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적응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복잡한 심리 상태가 피부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피부 질환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한다. 피부와 마음의 상호 연결성은 최근 정신피부학(Psychodermatology)이라는 분야로 의료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나 정서 상태는 몸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나에게 피부는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투영된 신체 기관이며, 매 순간 눈으로 확인하고 살갗의 감각을 느끼는 만큼 피부를 통해 나를 이해하기도 한다.

나는 피부와 관련한 나의 병리적 경험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오랜 시간 앓아 온 피부 질환은 나에게 불안의 표상이었다. 여기에 자학적인 긁기와 강박이 더해졌고 피부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 악순환이 이어졌다. 때문에 나의 피부를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정서적으로 환기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나는 피부와 종이를 동일시하여 연필 드로잉 작품을 제작했다. 종이는 손상되기 쉬운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이것을 피부의 손상되기 쉬운 특성에 빗대었다. 연필은 흑연 입자가 종이 표면에 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기 용이한 재료다.

연필 드로잉 과정은 종이에 손상을 남기며 완성에 다다른다. 강한 굵기가 피부에 상처를 남기듯이 나는 연필로 피부를 굵듯 종이를 굵어가며 드로잉했다. 또한 구체적인 에스키스(Esquisse)를 두지 않는 즉흥적인 필치로 날마다의 정서와 피부 현재를 작품에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나의 작업 행위는 피부 표면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과 더불어 내면 심리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작품을 만드는 행위가 강박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될 수 없었지만 강박을 우회적으로 마주 보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불안과 강박으로 얽힌 피부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반추했다. 이로써 불안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고, 결과적으로 피부와 마음이 서로 감응하며 떨 수 없는 연결 고리로 이어져 있음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피부를 주제로 작품을 만든 작가와 조형적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나의 작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또한 피부에 얽혀있는 불안과 강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의 작품에 나타난 주제 의식을 분석했다. 종이에 피부를 그려내는 방법을 통해 주제를 확장할 수 있는 조형적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앞으로 나의 작업이 나를 포함한 보는 이에게 자기 이해와 자기 회복에 도달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 서론.....	1
II . 본론 .....	3
1. 작업의 내용적 전개 .....	3
1) 작업 배경 : 강박적 피부 긁기	
2) 촉각적 질감의 시각화 : 드로잉	
2. 작업의 조형적 전개 .....	10
1) 종이와 연필	
2) 강박 해소 드로잉	
3. 작품 분석 .....	19
III . 결론 .....	33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비어있는 살>, 100×70cm, graphite on paper, 2020
- [작품 2] <녕마>, 70×100cm, acrylic, graphite on paper, 2020
- [작품 3] <성긴 연결>, 100×70cm, graphite on paper, 2020
- [작품 4] <뜯긴 조각>, 100×70cm, graphite on paper, 2020
- [작품 5] <얼룩을 긁어내는 감각>, 93.5×47cm, graphite on paper, 2021
- [작품 6] <증식 ver.3.1>, 90.9×325.5cm, graphite on paper, 2020-2021
- [작품 7] <증식 ver.2>, 193.9×112.1cm, acrylic, graphite on paper, 2020-2021
- [작품 8] <생장점>, 242.4×90.9cm, graphite on paper, 2021
- [작품 9] <surface 1>, 53×33.4cm, graphite on paper, 2022
- [작품 10] <surface 2>, 53×33.4cm, graphite on paper, 2022
- [작품 11] <뼈와 살>, 53×45.5cm, graphite on paper, 2021

## 도 판 목 차

- [도판 1] Ariana Page Russell, !!!!!, 16×20inch, C-print, 2005
- [도판 2] Ariana Page Russell, Flora, 24×20inch, detail C-print, 2006
- [도판 3] 본인작업, 형 압 판화 실험(부분), cotton paper, non ink press, 2017
- [도판 4] 본인작업, 형 압 판화 실험(부분), cotton paper, non ink press, 2017
- [도판 5] 본인작업, 형 압 판화 실험 설치 전경
- [도판 6] 본인작업(부분), 드로잉 제작 과정
- [도판 7] 본인작업(부분), 드로잉 제작 과정
- [도판 8] 본인작업(부분), 드로잉 제작 과정
- [도판 9] 본인작업, skin\_03, 162.3×130.3cm, oil on canvas, 2018
- [도판 10] 본인작업, 얇은 자리, 90.9×72.7cm, oil on canvas, 2019
- [도판 11] 본인작업, 숨 고르기, 190×140cm, oil on canvas, 2019
- [도판 12] 본인작업, 엮기, 140×420cm, oil on canvas, 2019
- [도판 13] 본인작업(부분), 드로잉 제작 과정

[도판 14] 본인작업, 습작들, 2019

[도판 15] [작품 6]의 2021년도 부분(좌)과 2022년도 부분(우)

[도판 16] 증식 시리즈 설치 전경 1

[도판 17] 증식 시리즈 설치 전경 2

# I. 서 론

지나치게 개인적인 문제나 이야기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두려움이나 불안의 감정을 마주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거리를 두고 감정의 원인을 관찰하듯 바라보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긴다.

나의 몸 위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사건 중 하나였던 피부 질환은 약 12년 이상을 앓아 온 만큼 나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대상이었다. 마치 내가 가진 모든 병과 불안의 근원이 그 병변에 모여있다고 의미를 부여할 만큼 정서적인 불안을 등에 있는 손바닥만 한 얼룩에 투영했다. 실제로 몸의 면역 상태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피부 병변은 재발과 악화를 반복했다. 육안으로 재발한 병변을 관찰하는 것은 다시금 스트레스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병변을 없애는 치료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피부로부터 떼어낸다는 것은 병변을 작품의 주제로써 사용함과 동시에 심리적으로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내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전개를 분석하고, 불안처럼 느껴지는 대상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확보함으로써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내 작품을 보는 이에게도 개인이 가진 내밀한 불안함과 거리를 두어 정서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다.

본론은 3개의 장으로 나누었다. 1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적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내 작품의 주제가 되는 병변에 관련하여 개인적, 이론적 배경을 촉각적인

질감과 표현 행위에 연관 지어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조형적 전개 과정을 서술하였다. 특히 나의 작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매체인 종이와 연필의 재료적 특성에 집중하여 작품의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앞의 두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작품을 전개했는지 작업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나의 작업이 놓인 현 지점을 스스로 검토하였다. 이로써 향후 나의 작업이 내용적으로나 조형적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Ⅱ. 본 론

### 1. 작업의 내용적 전개

#### 1) 작업 배경 : 강박적 피부 긁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에 무수히 많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 피부는 신체를 감싸는 외피로써 몸의 가장 바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특정 부분에 생긴 깊은 주름이나 반복적인 마찰로 인한 굳은살은 어떤 이의 습관에 대한 단서가 되고, 병이나 상처로 생긴 흉터는 우리를 당시의 기억 앞에 데려다 놓는다. 몸의 흔적에는 사람의 경험과 감정이 투영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나의 작품은 등에 있는 손바닥만 한 피부 병변에서 출발한다. 15살에 처음 발견하고 약 12년 이상을 함께 해 온 이 병변은 현재진행형이다. 몸의 면역력과 관련한 질환이기 때문에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재발했고 증상이 악화되면 몸의 다른 곳으로 번지기도 했다. 피부 병변은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건강 상태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다.

피부 병변을 작품의 주제로 풀어 내면서부터 나는 이것을 ‘얼룩’이라고 불렀다. 나는 평상시 가렵거나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룩을 긁고는 했다. 정확히는 뜯거나 긁어내려고 했고 반복적으로 문질러 벗겨내려고 했다. 피부 얼룩은 오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긁거나 문지르는 것으로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2차 감염으로 증상이 악화되기도 했다.

얼룩이 내게 큰 비중의 스트레스 요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온몸이 얼룩으로 뒤덮이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을 때였다. 증상을 관찰하기 시작한 어느 날인가부터 얼룩에 관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손쓸 새도 없이 늘어나는 얼룩을 보면서 꿈속의 나는 급한 마음에 손톱으로 얼룩을 긁고 뜯어냈다. 그러면 뜯어진 살점 자리에서 곧바로 새살이 돋고 다시 그 위를 얼룩이 뒤덮었다. 피부 얼룩이 끊임없이 탈락하고 재생하는 강박적인 꿈속에서 나는 현실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자학적으로 피부를 뜯어냈다. 그 이후로 나는 얼룩에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투영하기 시작했다. 얼룩을 관찰할 때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걸린 기분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얼룩이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불안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피부 얼룩의 증상이 악화되어 몸 곳곳으로 확산할수록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안이 몸을 뒤덮는 것 같아 두려웠다. 이처럼 얼룩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얼룩을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증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관찰해야 한다. 시각, 촉감,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살피면서 이 과정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대상을 관찰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얼룩을 그릴 때 필요한 과정 중 하나는 화지(畫紙)로부터 떨어져 거리를 두고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얼룩을 조형적 가능성을 가진 대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인 셈인데, 이때 나는 얼룩을 분석적으로 대함으로써 심리적인 거리감을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이런 거리 두기를 통해 피부 얼룩과 심리적 불안의 유착에서 벗어나 온전히 작업의 소재로서 얼룩을 의 미화하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에 열었던 나의 개인전 <왼쪽 날개뼈 아래 얼룩>을 위한 작업노트에서 작업의 주제가 되는 피부 병변에 대해 “드로잉을 통해 화면에 옮기면서부터 피부로부터 떼어낸다”<sup>1)</sup>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내 몸의 병변이 아

---

1) 본인 웹사이트, <https://kibokyung.myportfolio.com/text>

닌 작품으로의 주관적 변모를 통해 얼룩과의 심리적인 거리 두기를 시도해 보  
고자 함이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디디에 앙지외(Didier Anzieu, 1923~1999)는 그의  
저서 『피부자아』에서 피부를 통해 형성된 경험이 우리의 자아를 구성한다는  
피부자아 개념을 설명한다. 그는 피부에 생기는 손상이 심리적인 손상과 관련  
성이 있음을 역설하며 피부자아의 여러 기능들을 설명하는데, 신체의 버팀대로  
서의 피부 기능에 빗대어 “피부자아는 심리를 지탱해 주는 기능을 수행”<sup>2)</sup>한다  
고 말한 바 있다. 심한 긁기는 피부에 손상을 일으킨다. 그런 한편 쾌감에 가까  
운 해소를 가져온다.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이들은 자신의 몸을 강하게 긁거  
나 상처를 냈으로써 정서적으로 환기하는 경우가 있다. 얼룩과 관련해서 나의  
‘긁기’는 자학적인 성격이 있다. 앙지외는 긁기에 대해 “자신의 신체로 공격성  
의 방향을 돌리는 태곳적인 형태들 중 하나”<sup>3)</sup>라고 말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  
신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이 행동에서 해소를 얻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피  
부를 긁거나 뜯는 행동은 현대 의학에서 강박장애로 분류된다. “강박장애를 겪  
는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스스로 불안해하고,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강박행동을 반복한다. (중략) 이 같은 강박행동  
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뿐 결과적으로 불안을 증가시켜 악순환을 일으킨  
다.”<sup>4)</sup>

---

2) 디디에 앙지외(Didier Anzieu), 『피부자아』 인간회극, 2013, p.167

3) 디디에 앙지외(Didier Anzieu), 『피부자아』 인간회극, 2013, p.50

4) “현대인의 사회병 ‘강박장애’”, 전라포럼, 전라일보 (2023.1.16.접속)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536>



[도판 1]



[도판 2]

[도판 1] Ariana Page Russell, !!!!!, 16×20inch, C-print, 2005

[도판 2] Ariana Page Russell, Flora, 24×20inch, detail C-print, 2006

자신의 피부를 화지(畫紙) 삼아 작업하는 작가로는 미국의 작가 아리아나 페이지 러셀(Ariana Page Russell)이 있다. 러셀은 히스타민(histamine)<sup>5)</sup> 반응으로 매우 예민한 자신의 피부 위에 몽툭한 바늘 등으로 긁어 부어오르게 만든 후 증상이 가라앉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부를 사진으로 남긴다. 작가는 작품 속 취약한 피부를 통해 인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제시한다. 나는 러셀의 이와 같은 시도가 피부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주제의 맥락에서 나의 작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피부 증상의 일시적인 발현을 포착하는 점과 피부에 그려진 이미지의 장식성, 사진 촬영의 직접적인 방법론은 나의 고민과 다른 부분이었다.

나는 작품에서 몸의 질병이나 상태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얽힌 만성적인 불안과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가했던 강박행동을 표현함으로써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포함하고 싶었다. 표현 방법으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싶었고, 몸에 실제로 물리적인 행동을 가하기보다

5) “두드러기의 가려움은 진피의 마스트세포(비만세포)가 방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자극물질이 원인이다. 히스타민이 신경을 자극하거나 혈관에 작용하여 가려움이나 부기를 일으킨다.” 텐다 미쓰히로, 『제 3의 뇌』, 장연숙 역, 열린과학 2009, p.81

는 작품 자체로 지속성을 가지는 평면 회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때문에 피부 얼룩의 형태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얼룩이 내포하고 있는 불안과 강박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것이 내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했다.

## 2) 촉각적 질감의 시각화 : 드로잉

인류학자 앨프리드 크로버(Alfred Louis Kroeber, 1876~1960)는 미술 평론가 마이어 샤피로(Meyer Schapiro, 1904~1996)와의 편지에서 회화와 촉각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예술 표현에서 오로지 시각적 심상만이 떠오를 뿐 촉감을 상상할 수 없다면, 그 작품은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상상의 손길로 만져볼 수 있을 때만큼 매력 있지도, 관심을 집중시키지도 못한다.”<sup>6)</sup> 회화 표현이 가지는 호소력은 촉각성이 두드러질 때 더 강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각으로써의 시각과 촉각은 감각의 확장을 꾀한다. 나는 이것을 촉각적 질감이 평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해석하였다.

관람객이 작품을 직접 만지는 촉각적 경험은 대체로 어렵다. 사람들은 눈을 통해 작품의 느낌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대상은 감각 간의 전달에 따라 촉각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시각인지) 다시 말해 감각 간의 연상작용을 통해 눈으로 본 것의 촉감을 떠올릴 수 있다.<sup>7)</sup>

대상을 환영적으로 재현하여 눈속임 효과(트롱프뢰유, Trompe-l'oeil)를 주는 시각적 질감과 달리 촉각적 질감은 재료나 매체의 실제 물성을 활용한 질감을

6) 에슐리 몬터규, 『터칭:인간 피부의 인류학적 의의』, 글항아리, 2017, p.419

7) 이양화, 석승민, “공감각의 인지요소 중 시각적 촉감에 관한 연구-20세기 대표미술작품을 사례로-”, 조형미디어학, 20(1), 2017, pp.157-167 참고.

말한다.<sup>8)</sup> 일례로, 물감의 마띠에르가 전면으로 드러나는 유화나 아크릴화의 경우 붓 터치의 속도와 터치 방법, 물감의 양 등에 따라 시각적인 질감뿐만 아니라 촉각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질감이 조형 요소로 적용된다. 즉, 재료적인 측면에서 재료의 물성을 화면에 두드러지게 활용하는 것이 회화에서 촉각적 질감을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보편적으로 드로잉은 선적인 요소를 활용한 예술의 표현을 일컬을 수 있겠으나 나의 경우에는 범주를 좁혀 건식 재료를 사용한 평면 드로잉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했다. 물감의 덩어리를 부조적으로 활용하는 회화의 경우와 달리 건식 재료를 사용한 드로잉에서 촉각적 질감이란 대개 건식 재료가 가진 미세한 입자와 손의 압력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의 힘이 드러나는 드로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작가의 감정 상태를 유추해 보고는 한다. 드로잉 선의 굵기와 거친 정도, 즉 필압을 통해 작가가 인내와 끈기로 반복적인 선을 그었는지 혹은 정념에 휩싸여 일필휘지(一筆揮之)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건식 재료는 습식 재료에 비해 단단한 물성을 가지고 있어 드로잉 과정에서 힘을 필요로 한다. 건식 드로잉은 바탕이 되는 화면에 화구(畫具)가 지나간 압력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작품을 이루는 촉각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붓으로 화면을 만질 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손힘을 사용하는 건식 드로잉이 나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촉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드로잉은 떠오르는 단상을 포착하기에 유용하여 즉각적인 성격이 있다.<sup>9)</sup> 드로잉의 즉각적인 성격은 즉흥적이어야 하는 나의 작업에 부합했다. 나는 작품에서 계산된 형태나 필치가 아니라 날과 시간 마다의 다른 필치를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에스키스(Esquisse) 없이 연필 드로잉을 했다. 어떤 날은

8) 송경희, “회화에서 촉각성에 기반한 질감 표현 지도방안 및 효과 연구:다양한 ‘재료’와 ‘표면’의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국내석사, 2017, pp.28-29 참고.

9) 권여현, 『드로잉의 세계』, 재원, 2005, p.9

흐릿한 선으로 종이의 결을 따라 드로잉하고, 어떤 날은 검정에 가까운 짙은 선으로 면을 채우듯이 드로잉 하기도 했다. 같은 날 안에서도 국소(局所)를 뚫을 만큼 짓눌러가며 그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힘이 빠져 종이를 가볍게 스치듯이 그릴 때도 있었다. 이 차이로 종이에 요철에 가까운 질감을 만들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드로잉이 종이를 상처 내며 완성으로 향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드로잉은 피부를 뜯고 문지르고 긁어내려는 나의 욕망과 닮아 있어 내가 몰입하여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했다. 따라서 나는 감정의 고저(高低)가 담긴 내 행동을 촉각적 질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드로잉 작품으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 2. 작업의 조형적 전개

### 1) 종이와 연필

작품의 내용을 조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나는 주제와 재료를 은유하는 방식을 설정했다.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일차적인 전제는 피부와 종이를 동일한 평면으로 보는 것이다. 종이와 피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2017년 학부 3학년 때, 드로잉을 형 압 판화로 남기는 실험에서 시작했다.



[도판 3]



[도판 4]

[도판 3] 본인작업, 형 압 판화 실험 (부분), cotton paper, non ink press, 2017

[도판 4] 본인작업, 형 압 판화 실험 (부분), cotton paper, non ink press, 2017



[도판 5] 본인작업, 형 압 판화 실험 설치 전경

위 작업은 두드러기가 오른 피부 표면을 부조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실험했던 것으로, 1층 높이의 계단을 감싸 내려오는 스케일을 위해 종이의 결, 쿠션감을 만져보며 익혔던 경험이 현재의 드로잉까지 지속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다.

종이는 재질과 두께에 따라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탕이다. 종이는 습도나 온도에 따라 쉽게 변형되고, 코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찢어지거나 오염에 취약할 수 있다. 나는 종이의 이런 상하기 쉬운 물성이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지기 쉬운 외피로서의 피부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종이는 공기 중에 산화되어 노랗게 변색되기 쉬우므로 작품에 사용하는 종이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알칼리화 공정을 거친 중성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 작업에 중성지를 사용하게 된 것은 작품의 보존성이 목적이었다. 작품 구상을 할 당시에 산화 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켄트지에 드로잉을 시작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는 황변현상을 경험하고 작품에

맞는 중성지를 찾아보았다. 아울러 작품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결처럼 미세한 요철과 쿠션감이 있는 표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핫프레스(Hot press) 기법으로 제작된 판화지를 작품에 사용하였다.

주로 이탈리아 파브리아노(Fabriano)의 로자스빠나(Rosaspina) 판화지와 띠에 플로(Tieplo) 판화지를 선택했다. 이 둘 판화지는 각각 60%와 100%의 면섬유를 함유한 중성지로, 각기 다른 두께로 생산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다. 내 작업에서 종이의 두께는 이미지의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였다. 종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긁기’가 일으키는 손상에 대한 구현을 더 심도 있게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약 80g 정도의 얇은 종이를 강한 힘으로 긁으면, 내가 원하는 표면을 만들기도 전에 쉽게 찢어졌다. 그보다는 견고한 화면이 필요했으므로 200g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였다. 이보다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종이에는 상처뿐 아니라 연필의 힘에 따른 자국이 선명히 남는다. 나는 종이에 남은 연필 자국이 피부를 긁어서 만든 찰과상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종이가 가진 물성은 의미적으로나 조형적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느껴졌다.



[도판 6]

[도판 7]

[도판 8]

[도판 6] 본인작업(부분), 드로잉 제작 과정

[도판 7] 본인작업(부분), 드로잉 제작 과정

[도판 8] 본인작업(부분), 드로잉 제작 과정

또 다른 은유로써 나는 피부 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손상을 드로잉으로 표현한다. 드로잉의 표현을 위한 매체는 연필을 사용한다. ‘왜 연필인가?’라는 질문은 작업 초기에 스스로에게 가장 큰 의문점이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나는 2021년의 작업노트에서 연필이 가진 다양한 경도에 따라 종이에 다르게 표현되는 특성과, 드로잉 자체가 가지는 촉각성을 짧게 서술한 바 있다. 후술할 글에서 연필 사용에 대한 생각을 적었다. 이것은 피부 손상, 굽기에 관한 비유이기도 하다.

“연필의 선이 다양한 강도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손의 압력과 연필 경도의 조합이 필요하다. 무른 연필은 종이를 짓누르며 짙은 선을 내고, 단단한 연필은 칼처럼 종이를 열게 상처 낸다. 한자리에 반복적으로 선을 그으면 종이는 찢어지고 약한 힘으로 선을 그으면 쉽게 지워진다. 종이는 연필에 준 손의 힘을 고스란히 받는다. 캔버스에 물감이 쌓이거나, 종이에 물감이 스미는 것과는 다른 물성을, 손끝의 감각으로 느낀다.”<sup>10)</sup>

연필과 같은 건식 재료들은 ‘힘-지지체-안료’의 구조를 가지는 습식 재료와는 달리 ‘힘-지지체이자 안료’의 더 직접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손의 힘을 보다 직접적으로 화지에 전달하기 때문에 종이 위에 힘주어 선을 긋는 드로잉은 굽기와 맞닿아 있다. 우리가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 있고 손톱 끝에 힘을 주어 살을 파고들며 자상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흑연 입자를 부드럽게 종이 표면에 안착시키거나 혹은 종이 표면을 찢어버릴 수도 있는 힘의 단계를 표현하는 재료로써 연필을 사용했다.

---

10) 본인 웹사이트, <https://kibokyung.myportfolio.com/text>

## 2) 강박 해소 드로잉

연필 드로잉 이전에 나는 이상 증상이 있는 피부 자체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다. 아크릴 미디엄을 사용해 요철을 만든 캔버스에 유화의 드라이 브러시(Dry brush) 기법을 사용하여 붉고 푸른 혈관이 비치는 피부를 그렸다.



[도판 9] 본인작업, skin\_03, 162.3×130cm, oil on canvas, 2018



[도판 10] 본인작업, 얇은 자리, 90.9×72.7cm, oil on canva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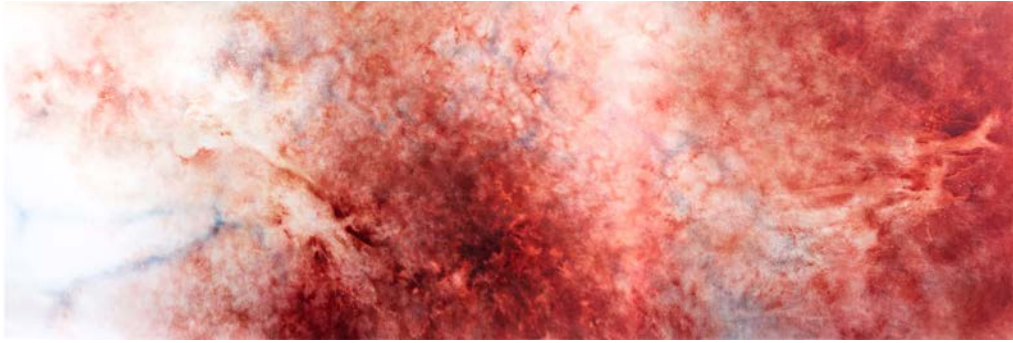
유화의 드라이 브러시 기법은 장시간 동안 유화 물감의 기름을 빼고 적은 양의 물감을 건조한 상태로 갈필(渴筆)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름을 뺀 유화 물감은 색에 따라 안료의 입자가 보일 만큼 건조해진다. 우리는 흔히 정서가 무더질 때 메마르다거나 건조하다고 표현한다. 피부 질환 문제는 내게 지난했고 그만큼 염증이 느껴지는 동시에 지겨웠다. 나는 작품 안에서 건조한 물감으로 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싶었다.



[도판 11] 본인작업, 숨 고르기, 190.9×140cm, oil on canvas, 2019

초기에는 몸의 형상과 피부를 함께 드러냈으나 점차 피부의 상태만을 그려내  
고자 했고, 이 시도는 결국 색이 강조되는 추상적인 이미지로 향했다. 그러나  
작품이 추상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표현 방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 놓치  
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은 강박행동의 부재였다. 불안을 느낄수록 행했던 강박행동인 굵기가

유화 작업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나는 주제와 재료의 관련성, 방법이 적절했는가에 대해 복기하고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도판 12] 본인작업, 읽기, 140×420cm, oil on canvas, 2019

나는 유화 물감에서 연필로 이어지는 재료의 흐름을 입자와 건조함이라는 교집합에서 찾았다. 그리고 메마른 정서 상태에 대한 표현을 위해 습식 재료보다 입자와 건조함이 두드러지는 건식 재료로 눈을 돌렸다. 그중 연필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드로잉 할수록 연필이 강박행동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작업에서 불안과 강박의 제스처를 반복적인 긁기로 표현했다. 강박에 못 견디 단번에 강한 힘으로 피부를 긁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 딱지 위를 참지 못하고 살살 긁거나 하는 식의 행동을 종이 위에 연필 자국 강도를 통해 드러냈다. 연필 자국의 강도는 연필의 경도와 손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긁기에 적용한 손힘의 완급조절을 연필을 쥐 손에도 적용했다. 때문에 종이를 긁을수록 손끝으로 피부를 긁을 때와 같은 쾌감이 따라왔다. 때때로 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쾌감으로 손에 힘을 주어 종이를 뚫어버릴 듯이 드로잉 했다. 연필 드로잉을 시도할수록 연필이 보다 직접적으로 손의 힘을 화면에 전달할 수 있

는 재료라고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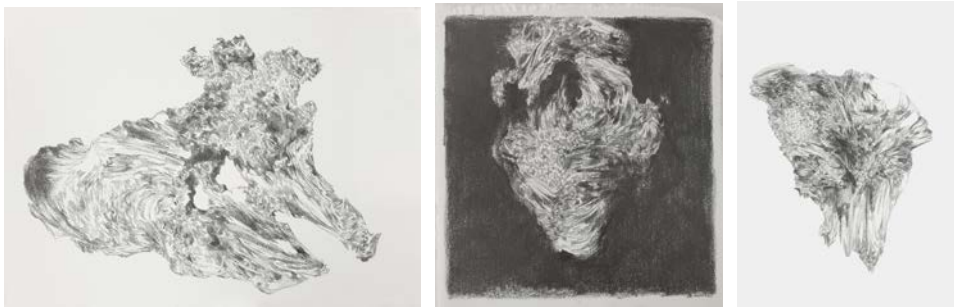
[도판 13] 본인작업(부분), 드로잉 제작 과정

나의 주된 고찰은 굵기를 어떻게 피부 감각과 연결하여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였기 때문에 앞선 회화 표현에서처럼 시각적인 재현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피부 자체와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촉각성을 질감을 통해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다시 말해 피부를 굵듯이 종이를 굵어가며 강박을 우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얻고자 했다.

### 3. 작품 분석

초기 연필 드로잉 당시에 나는 내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었다. 그래서 피부와 얼룩이 아니라 보는 이가 가늠하고 상상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작업을 설명하고자 했다. 주제에 대한 돌파구로써, 기저의 불안을 주제로 한 고전 문학이나 시적 표현에 대해 스테디를 하기도 했으나 만족스럽지 않았다. 불안을 어떤 형태의 이미지로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누구의 불안이고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나와 관계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결국 지엽적으로 돌고 돌아 피부 얼룩을 주제이자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다.

작품들은 진행 흐름에 따라 얼룩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와 상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작품을 다른 작품의 보완 설명으로 제작하거나 작품 내용의 일부에서 파생한 또 다른 작품을 제작하며 작업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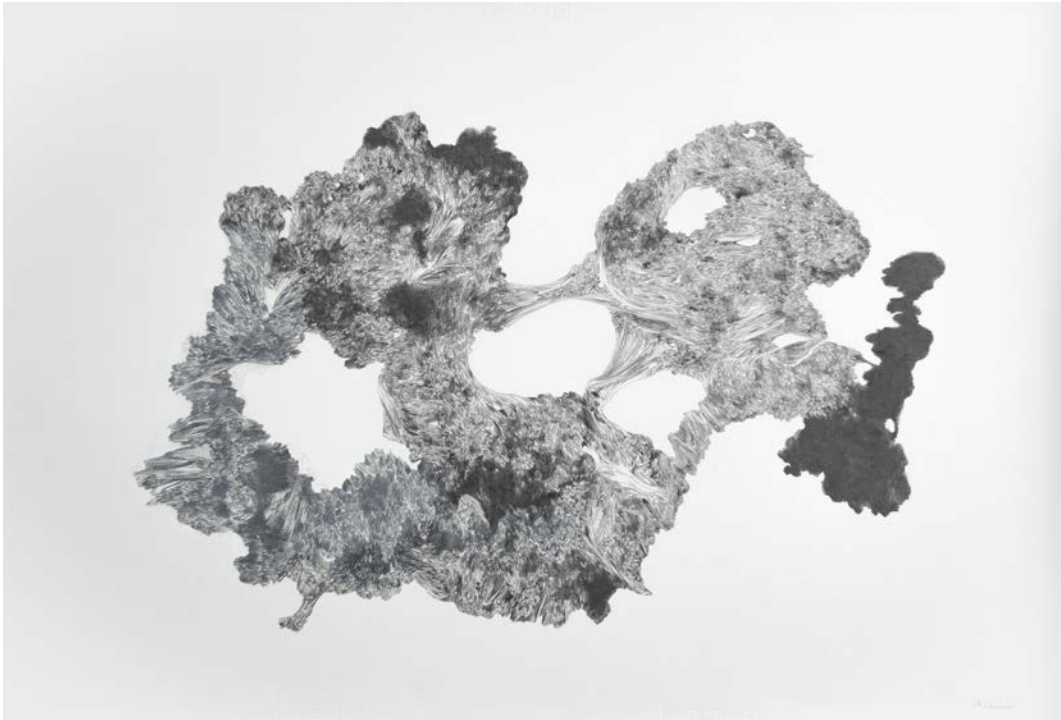
[도판 14] 본인작업, 습작들, 2019

[도판 14]에서는 종이와 연필이라는 매체와 피부 얼룩과의 연결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종이에 대한 연필의 압력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려낸 드로잉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이미지에 대한 느낌은 유사했다.



[작품 1] 비어있는 살, 100×70cm, graphite on paper, 2020

[작품 1]은 얼룩 자체의 형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살점과 아슬아슬하게 피부에 붙은 살점 조직, 살점이 떨어져 나가 패인 상처 자리를 연상하며 드로잉 했다. 정상적인 피부는 흰 여백으로 드러나게, 드로잉 한 부분은 살점이 뜯겨나간 자리로 설정하였다. 이때 피부와 종이를 동일시하는 비유를 확정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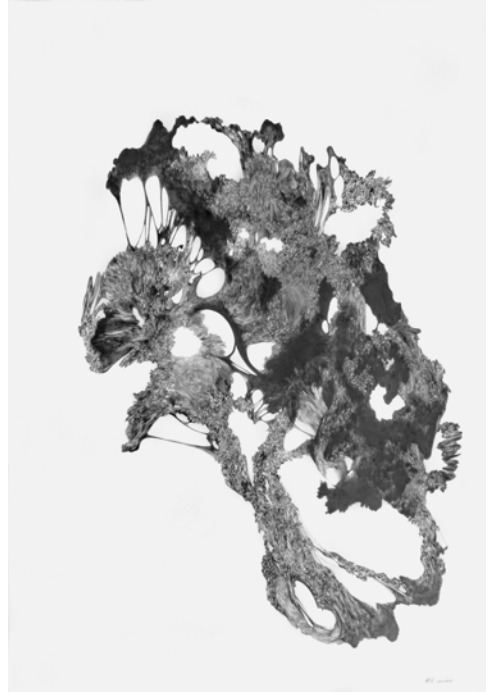
[작품 2] 녁마, 70×100cm, acrylic, gesso, graphite on paper, 2020

[작품 2]는 기법적으로나 형태적으로 과도기에 있는 작품이다. 기법적으로는 레이어 없이 단층으로 된 드로잉 구조에서 한 단계 나아가 연필 드로잉을 여러 번 쌓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 물에 열게 희석한 제소(Gesso)와 아크릴릭(Acrylic)을 연필 드로잉 위에 얹게 채색하고 다시 그 위에 연필로 그리며 중첩 레이어를 만들었다. 부분 별로 서로 다른 층의 얇은 레이어를 통해 단일한 드로잉 구조가 주는 단조로움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였다. 형태에서는 하나의 덩어리 구조에서 벗어나 좀 더 파편화시키며 작업을 이어 나갔다. 이전까지 여백-구멍이 없는 형태의 얼룩 모양 그 자체를 말하고자 했다면 이는 얼룩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얼룩에 관련한 감정 상태에 대한 의미를 더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의 두 작품은 상술한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작품 3]

[작품 3] 성긴 연결, 100×70cm, acrylic, graphite on paper,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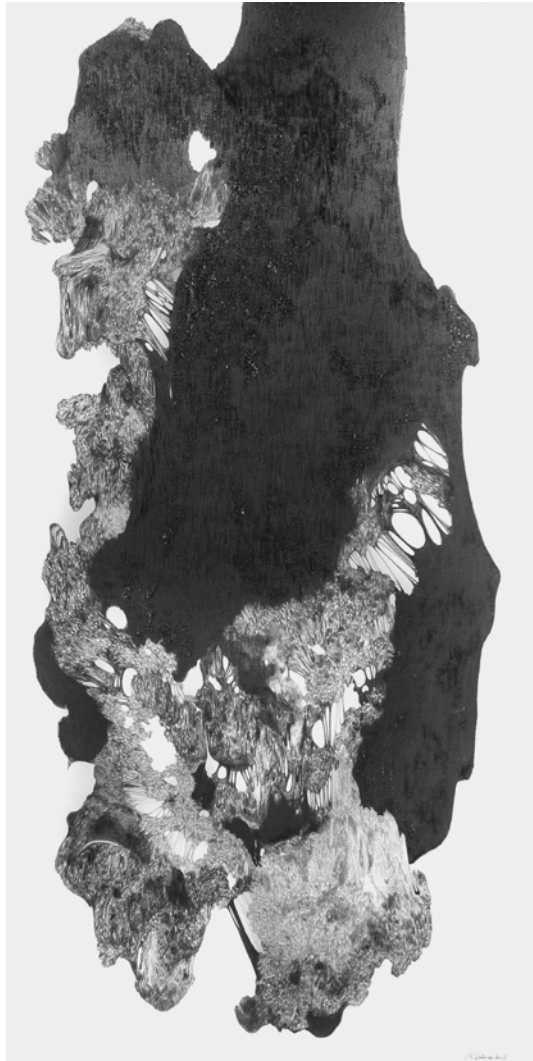
[작품 4]

[작품 4] 뜯긴 조각, 100×70cm, graphite on paper, 2020

얼룩에 대한 강한 인상 중 하나는 잦은 재발로 인해 완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나에게 매우 끈적하고 끈질긴 촉감을 떠올리게 했고, 얼룩을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실제 얼룩의 촉감은 보슬보슬하고 외려 약간은 건조한데 반해 인상만큼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점액질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형태적으로도 조직 사이사이를 가르는 점액질을 배치하기 위해 더 흐트러지고 헤진 모습을 강조하려고 했으며, 점액질의 표현은 흑연으로 까맣게 칠하게 되면 나타나는 매끈한 느낌을 이용했다. 건식 재료의 특징은 다루기에 따라서 안료의 입자를 아주 느슨히 하거나 아주 촘촘히 배열해 강약을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습득한 후에 나는 끈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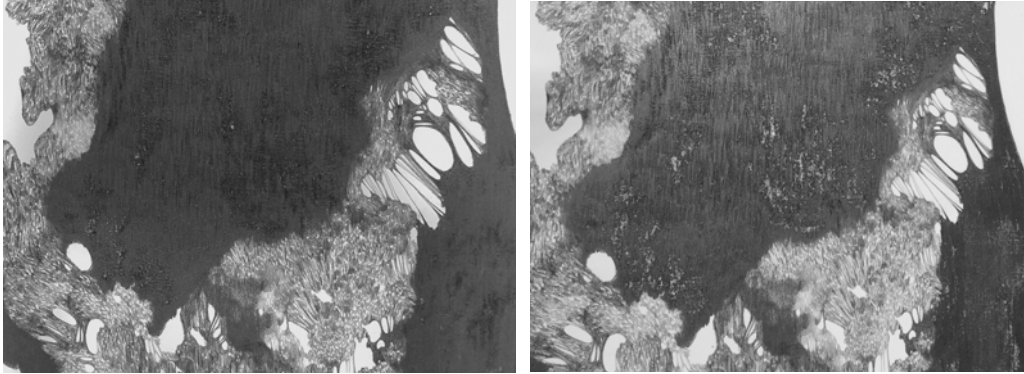
늘어지는 점액질 이미지를 작품에 전반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형상으로 피부에서 떨어질 듯하면서도 끈질기게 연결된 얼룩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었다.

한편 위 작품들을 진행하면서 종이 위에 쌓이는 레이어가 과연 앞서 언급했던 유화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고, 이때 종지와 연필을 사 용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함을 느꼈다. 연필이 종지를 긁으며 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같으나 그 강도가 더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박적 제스 처와 재료의 물성을 연결 짓고자 한 시도는 다음 [작품 5]에서 정립하였다.



[작품 5] 얼룩을 긁어내는 감각, 93.5×47cm, graphite on paper, 2021

[작품 6]은 긁기의 방식이 극대화된 과정에 있는 작업이다. 전체 이미지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검은 영역은 6B에서 9B까지의 무르고 짙은 연필 선으로 종이를 눌러가며 자잘한 질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긴 요철 위에 대략 3H 이상의 단단하고 열은 심의 연필을 니들(Needle)처럼 사용하여 긁으면 마치 피부 각질이 떨어지듯 종이 부스러기와 흑연 가루가 탈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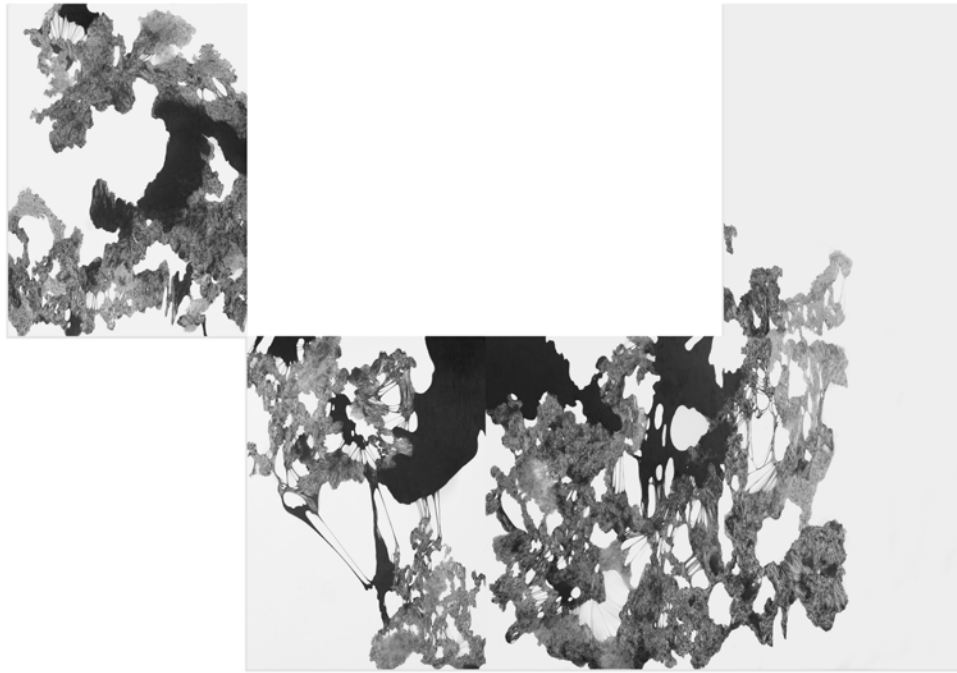


[도판 15] [작품 6]의 2021년 부분(좌)과 2022년 부분(우)

작업 마무리로 픽사티브(Fixative) 후처리를 하더라도 이미 헤집어진 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벗겨지게 되는데, 나는 이 과정을 작업에 포함시켰다. 작품이 제작된 당시와 현재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 날카로운 연필로 상처가 난 표면은 마치 껍질처럼 계속해서 떨어져 나갔고, 이것으로 종이의 또 다른 표면을 만들어 종이의 속으로 파고드는 깊이감을 표현하려고 했다.



[작품 6] 증식 ver.3.1, 90.9×325.5cm, graphite on paper, 20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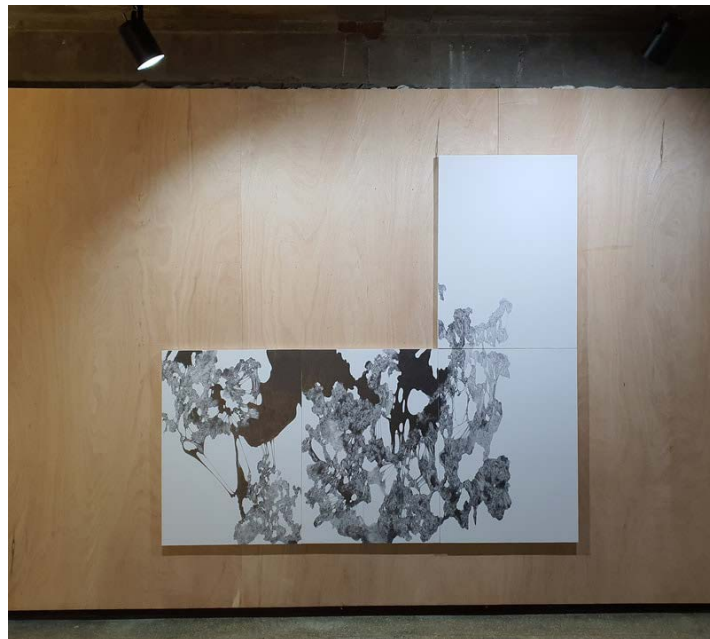
[작품 7] 증식 ver.2, 181.8×260.4cm, graphite on paper, 2020-2021

얼룩의 확산과 그로 인한 만성(慢性)은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게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증식 시리즈는 여기에 작품의 최대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맞물린 작품이다. 내가 작품에 사용하는 종이는 100.0x70.0cm로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이즈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더 큰 화폭의 다른 종이를 구하거나 작은 종이를 이어야 했다. 두 가지 방법 중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확산과 현재진행형 특성에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룩이 번지는 상태에 집중하고자 한 것으로, 작품 제작 당시에 유행하던 모듈(Module) 구조의 가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모듈 구조 가구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조립을 달리함으로써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나는 한 장의 종이에 얻을 수 있는 드로잉을 작품의 일부인 '모듈'로 설정했다. 작품의 전체 이미지를 완전히 계획하거나 고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듈을 다르게 조합하여 작품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어 보기도 했다. 여기에 추가로 제작한 모듈을 더하거나 조합한 모듈을 빼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는 시각적인 변화를 피하고 한 점도 있었다.



[도판 16] 증식 시리즈 설치 전경 1



[도판 17] 증식 시리즈 설치 전경 2

나는 증식 시리즈를 통해 [작품 5]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의 외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작품에 포함하고자 했으며, 이 작품으로 다수의 전시 경험이 더해져 전시장의 공간과 디스플레이의 가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작품 8] 생장점, 242.4×90.9cm, graphite on pap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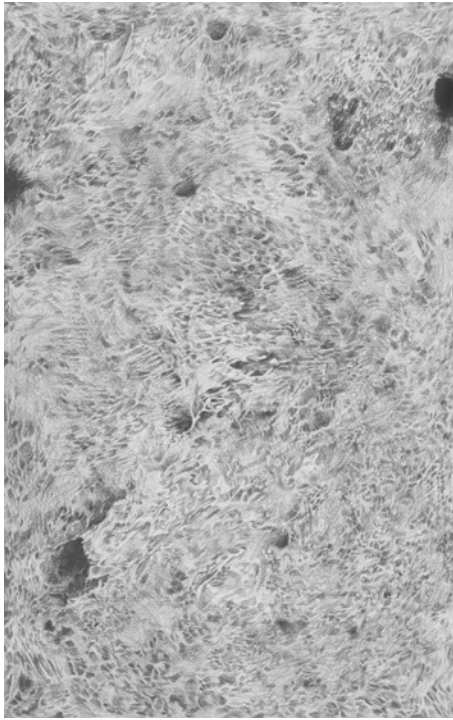
[작품 8]은 증식 시리즈에 이어 대형 작품의 필요성을 느껴 작업했다. ‘생장점’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얼룩이 자라나는 말단부 형태에 대해 상상하며 그린 작품이다. [작품 8]로 그간의 제작 기법들을 종합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얼룩과 피부, 굽기에 대응하여 기법에 더 초점을 맞췄던 이전 작업들과 달리 생성과 탈락이라는 개념에 시각적으로 더 집중해 보려고 했다. 얼룩의 조직이 자라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를 상상했다. 위로 차오르듯이 자라면서도 조직의 일부는 무너지거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새 살이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화면에 담고 싶었다.

한편으로 이 작품을 통해 나는 얼룩이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이후의 작업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째, 종이와 피부의 동일시를 유지하며 표면에 대한 이미지를 심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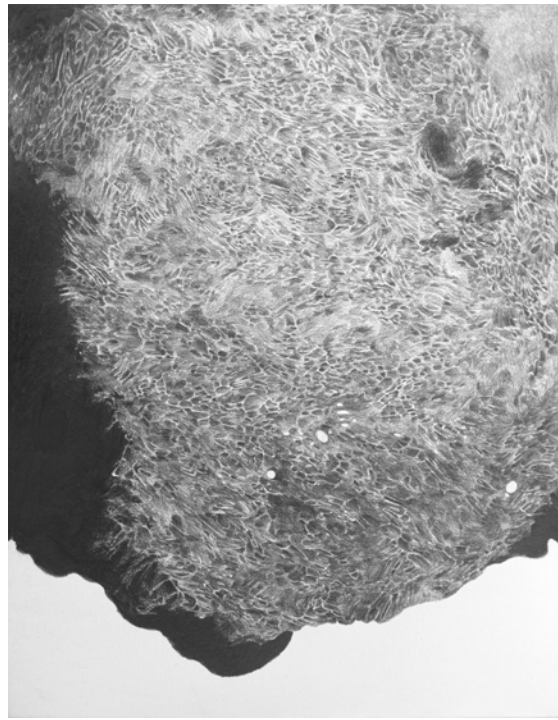
둘째, 얼룩의 이미지에서 파생한 상상을 덧붙여 작품이 가진 내용적 가능성을 찾는다.

그간의 작품들을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나는 작품의 형태들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종이의 여백과 연필로 그린 비정형의 얼룩이 유사한 비율로 배치된 것인데,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균등하게 배치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것을 내 작품의 특징적인 형태로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작업을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미지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구도나 이미지의 획일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민이 이어졌다.



[작품 9]

[작품 9] Surface 1, 53.0x33.4cm, graphite on paper, 2022



[작품 10]

[작품 10] Surface 2, 53.0x40.9cm, graphite on paper, 2022

[작품 9]와 [작품 10]은 형태보다 질감 자체를 강조하고자 시도한 작품이다. 얼룩의 형태보다 시각적 질감에 초점을 맞춰 표면이 강조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다. 표면을 강조하자 인체 조직의 다른 부분을 연상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뼈의 단면에서 볼 수 있는 구멍 조직으로, 이것은 [작품 11]의 뼈에 대한 단상 과도 연결된다.



[작품 11] 뼈와 살, 53.0x45.5cm, acrylic, graphite on paper, canvas 2021

시기상으로 [작품 11]을 먼저 드로잉 하고 난 후에 [작품 9]와 [작품 10]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을 그릴 때 아마 한편으로 뼈의 단면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다. 피부와 얼룩, 불안에 대한 관심은 몸의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했다. 기저의 감정을 얼룩으로 표현한다는 내용적 측면에서 나는 피부 너머 기저에 위치한 뼈에 대한 단상(斷想)을 떠올렸다.

살면서 한 번도 나의 뼈를 직접적으로 마주한 적이 없다. 이 사실에서 얼룩이 온몸으로 퍼지는 상상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묘한 불안과 흥미가 동시에 느껴졌다. [작품 11]은 해부학적인 지식과 무관하게 비정상적으로 모양이 자란 뼈 덩어리와 거기에 붙은 살점 조직을 떠올리며 드로잉 했다. 비정형의 얼룩이

비대해지는 것처럼, 뼈가 해부학 지식을 차치하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자란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상상했다. 나는 이 상상으로부터 개념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했고, 재료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나는 피부에 국한하여 작품을 제작해왔으나 자기 이해의 바탕으로서의 몸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구성 요소를 작품의 주제로서 가져 오고자 했다. 또한 종이와 피부를 빗댄 것처럼 몸과 행동 특성에 빗낼 수 있는 물성의 재료를 찾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작품을 기반으로 하여 나의 작품 세계를 내용적으로 재료적으로 더욱 확장해 보고 싶다.

### Ⅲ. 결 론

나는 피부를 자기이해와 치유의 매개로 보고 피부와 관계된 나의 병리적 경험들을 작품으로 표현해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한 나의 연필 드로잉 작업 과정과 작업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적인 강박을 우회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피부는 몸을 감싸는 신체 기관인 만큼 시각적으로 몸을 볼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나는 이렇듯 거대한 피부가 표출하는 이상 증상이 내면의 정서, 심리와 관계되어 있음을 전제로 작업하였다. 피부와 관련된 개인적인 불안과 강박행동 경험을 작품으로 녹여냈고 작업을 통한 해소를 시도했다.

이 작업이 나에게 가져다준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변화는 불안과 강박의 표상이던 피부 얼룩을 불편하게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 피부와 종이의 동일시는 피부에 가한 자학적인 강박행동을 종이로 옮기는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었고 덕분에 나의 행동을 조형적인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었다. 얼룩을 관찰하여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고, 작품을 위한 글을 쓰는 일련의 과정들을 위해서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안과 강박행동을 일으키는 감정을 작품 제작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발화(發話) 함으로써, 나는 더 이상 피부 얼룩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다. 오히려 작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소재로써 받아들였다.

나는 내 작품 속의 집요한 드로잉과 헤진 표면이 보는 이에게 제작 의도와 같은 카타르시스(Katharsis)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경험이 타인의 경험이나 상황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피부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

나는 질병과 그로 인한 심적인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므로, 내 작품을 말미암아 저마다의 불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본론의 작품 분석을 통해 작업 이미지에서 형상에 관한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얼룩의 형태와 질감, 강박행동인 긁기를 함께 표현하려다 보니 오히려 내가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긁기라는 방법이 작업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드러났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연필 드로잉은 나의 작업에서 감정적 행위를 표현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긁기의 방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미지를 탐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탐구의 첫 장은 종이가 될 것이다. 보다 심도 있는 긁기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종이를 제작하거나 다른 소재의 종이를 작업에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이의 물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재료와 기법에 대한 탐구가 앞으로 내 작업에 더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내 작품을 보는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작업하며 느끼는 심리적인 해소를 줄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참 고 문 헌

- 권여현, 『드로잉의 세계』, 재현, 2005
- 덴다 미쓰히로, 『제3의 뇌』, 열린과학, 2009
- 디디에 앙지외, 『피부자아』, 인간희극, 2017
- 송경희, “회화에서 촉각성에 기반한 질감 표현 지도방안 및 효과 연구 : 다양한 ‘재료’와 ‘표면’의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국내석사, 2017
- 애슐리 몬터규, 『터칭:인간 피부의 인류학적 의의』, 글항아리, 2017
- 이영화, 석승민, “공감각의 인지요소 중 시각적 촉감에 관한 연구-20세기 대표 미술작품을 사례로-”, 조형미디어학, 20(1), 2017
- 전라포럼, “현대인의 사회병 ‘강박장애’”,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536>  
(2023년 1월 13일)
- 전혜숙, “피부 - 경계가 무너지는 장소.”,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43.-(2015)
- 한국미술연구소, 『드로잉』, 시공아트, 2001
- Ariana Page Russell, “Skin”, <https://arianapagerussell.com> (2023년 5월 15일)

# ABSTRACT

## A study on pencil drawing to relieve psychological obsessions

- focused on my work -

Ki, Bo kyung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my pencil drawing artwork created between 2019 and 2022, analyzing and describing the content and formative practice progression of the piec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skin is interconnected with the mind, I regarded the skin as a mediator for self-understanding. The skin, being the largest sensory organ of the body, envelops it while simultaneously interacting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regulating the body's tension.

Observing reactions occurring on the skin allows individuals with sensitive skin to comprehend their adaptive responses to psychological states and stimuli from the external world. Personally, due to having sensitive skin, my complex psychological states are sometimes revealed through my skin, and my nerves become more sensitive due to skin problems.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 skin and mind is currently being studied in the field of psychodermatology within the medical society. Thu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e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body and behavior of many individuals. For my case, the skin is not merely a physical aspect of the body; it is a corporeal organ that reflects the state of the mind, enabling self-knowledge through visual confirmation and tactile sensations. I expressed my pathological experiences related to the skin through artwork.

Having suffered from various skin problems for a long time, my skin disorders represented symbols of anxiety. Compulsive scratching and obsessions further compounded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cious cycles caused by the skin. Therefore, I aimed to emotionally ventilate by expressing my skin through artwork. To achieve this, I created pencil drawing artwork by equating the paper with the skin. Paper possesses fragile properties, which I related to the vulnerability of the skin. Pencil, with its graphite particles readily embedding into the surface of the paper, served as a suitable medium. The process of pencil drawing involves leaving marks on the paper, signifying damage inflicted upon it, and concludes with the completion of the artwork. Similar to how vigorous scratching leaves wounds on the skin, I used the pencil to scratch and draw on the paper. I incorporated spontaneous strokes without specific sketches, capturing and reflecting my daily emotions and the current state of my skin. The act of creating artwork aims to foster empathy and understanding of internal psychological struggles while confronting surface-level skin issues. While the creative practice process may not directly provide a cure for obsessive behaviors, it can offer an indirect means of confronting and acknowledging them. Throughout the process of depicting

my skin entwined with anxiety and obsession, I continuously reflected upon myself. Through this process, I aim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calmly accepting anxiety and, ultimately, demonstrate through my artwork the inseparable connection and resonance between the skin and the mind.

This paper explores the artist's creation of artwork centered on the theme of skin, examining the formative approach, and highlights the differences from my own artwork. Furthermore, it analyzes the conscious themes depicted in my artwork, seizing the opportunity to alleviate anxiety and obsession related to the skin. By exploring the method of depicting skin on pap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formative development and expands upon the themes, aspiring for my future artwork to serve as a meaningful catalyst for self-understanding and recovery for both myself and the viewers.